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박 중 규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배 성 만[†]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 연구는 일반표본과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대한 표적집단 표집을 통해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서울 및 경기, 대구, 강원(춘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3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표본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261명(남 114명, 여 147명), 표적표본은 PC방을 중심으로 98명(남 82명, 여 16명)을 조사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불안 등의 변인이 인터넷 중독의 62%를 설명하였다. 특히, 소일거리 사용동기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의 예측과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동기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주요어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부모-자녀 의사소통, 인터넷 사용동기

*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 교신저자 : 배성만,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40번지

Tel : 031-910-7873, E-mail : spirit73@hanmail.net

2000년 이후 인터넷중독 척도개발(강만철, 오익수, 2001; 이형초, 최윤경, 이순목, 반재천, 이순영, 2007),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2009) 및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특성(Young, 1999)이 상당부분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특성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예: 인터넷 접속의 장소, 사용시간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예: 우울감, 사회적 불안, 충동성, 주의산만, 대처양식, 사용동기 등)(윤재희, 1998; 김종범, 1999; 이수진, 2008) 및 부모의 양육관련 특성(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방희정, 조아미, 2003;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특성들이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개별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노력은 부족하다(표현정, 이민규, 2009). 또한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이나 심리 및 정서적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역할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요인이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 심리적 안정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김정아, 1990; Denham, Renwick & Holt, 1991; Petit, Dodge & Brown, 1988; Baruch & Barnett, 1981; Baumrind, 1991),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질이 인터넷 중독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혜(2010)의 연구에서 지적된 부정적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우울과 자기통제력에 이어 세 번째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안석, 200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거부나, 무관심에 의한 좌절, 혹은 부당한 압력(장재홍, 2004),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조춘범, 2001),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이 개인의 인터넷중독 위험성을 높이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2008). 반면, 성인에게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인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도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김종범(1999)은 자존감, 우울, 외로움 및 공격성 변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과 비중독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중독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우울과 외로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박성민(2010)의 연구에서도 우울, 특히 관념적 우울성향이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Korgaonkar와 Wolin(1999)는 사회적 도피, 정보추구, 상호작용, 사교 등의 5요인을, Papacharissi와 Rubin(2000)은 대인관계, 소일거리, 정보 검색, 편의성, 오락의 5요인을 인터넷 사용동기로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재희와 홍재욱(2000)이 즐거움, 사회적 관계, 시간 보내기, 정보, 편의의 5요인을, 박성희와 최준호(2004)가 친교, 자기표현, 자기발

전, 정보추구, 기분전환의 5요인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김지현(2001)은 편익추구, 정보추구, 시간보내기, 사회적 상호작용, 오락 등의 8요인을, 천명재와 김창대(2005)는 자기표현, 정보관리, 성취, 소일거리, 업무편의 등의 9요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요인들로 시간보내기(소일거리), 편의동기, 자기표현, 성취동기, 정보관리(정보추구) 등을 가정하였다.

인간의 중독행동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심리학적 모형인 Ajzen(1991)의 계획된 행위모형과 이를 발전시킨 합리적 행위모형에서는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행동의도를 강조했으며, 이 모형의 적합성은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증명되었다(표현정, 2006; Ajzen, 2002). 행동의도는 개인의 특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고 행동의도가 클수록 특정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Ajzen(1991)의 주장에 기초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병리적 인터넷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일 것으로 가정하였다(표현정, 이민규, 2009). 또한 인터넷 사용동기와 다른 인터넷 중독 예측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곽웅신, 2006; 곽웅신, 이영호, 2008).

인터넷 중독에 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며, 어떤 과정으로 중독에 이르는가에 대한 관심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기존연구 대부분이 아동 및 청소년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아동, 청소년들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와 치료적 접근의 모색이 더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일반 학생들 중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은 피험자들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이나 설명모형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반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피험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인터넷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표본과 함께 고위험군인 표적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집단을 대상으로 이전 연구들에서 거론되었던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아울러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중독(예, 스마트폰 사용, 각종 새로운 매체)에 관한 연구에도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대구광역시, 강원(춘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37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

한 11명을 제외한 성인 3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표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이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측된 표적표본은 PC방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지목된 대상을 중심으로 면접 및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 359명 중 일반표본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된 261명(남 114명, 여 147명)이었고, 표적표본은 98명(남 82명, 여 16명)이었다.

측정 도구

면접을 통한 표적표본의 평정

표적표본의 경우 이형초, 최윤경, 이순목, 반재천, 이순영(2007)이 수행했던 방식에 따라 PC방 단골고객 중 주인에 의해 인터넷 과다사용자로 지목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성인관찰자 척도를 실시하여 고위험 사용자군(총점 20점에서 16점 이상)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II군(총점 20점에서 6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표적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약 8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 후 시간소요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일반전집에서 상위 극소수에 해당되는 고위험군의 표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과다사용 및 중독적 행동특성을 나타내기 쉬운 대상자군을 찾아 표적표집을 시도한 것이다.

자기보고 질문지의 시행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A 척도). 이형초, 최윤경, 이순목, 반재천, 이순영(2007)가 성인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0문항, 4점 리커트 척도(총점 80점)로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인

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인터넷 사용자 수준을 고위험군(67점 이상), 잠재적 위험사용자 II군(이하 잠재위험 II군, 54-66점), 잠재적 위험사용자 I군(이하 잠재위험 I군, 43-53점), 일반사용자군(이하 일반군)으로 나뉜다. 잠재위험II군은 전문상담 요망군으로 대인관계가 현저히 줄어들고 학업 및 직업적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잠재위험 I군은 자기 관리 요망군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일상에서의 뚜렷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이형초 등, 2007).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가상지향 .81, 긍정기대 .80, 내성몰입 .85, 자기인식 .80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20문항으로 각각 10문항씩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부모-자식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며(ex,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두 번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차원은 부모-자녀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ex, 부모님은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방식의 4

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개방적 의사소통 .93,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84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척도. Kendall & Wilcox(1979)의 교사나 부모 보고형 자기통제 척도를 송원영(1998)이 자기보고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1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스트레스 대처(Stress Coping)는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에 기초하여 강정주(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극적 대처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서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를 측정하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1~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였고,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 SCL-90-R). Derogatis(1977)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을 국내에서 김광일과 김재환(1984)이 재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5

점 평정 척도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평정을 한다. 이 검사는 신체화(somatization),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적대감(hostility), 공포불안(phobic anxiety), 편집증(paranoid ideation), 정신증(psychoticism)의 9개 증상차원(임상척도)과 현재 장애의 수준 혹은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심도지수(GSI), 증상의 수를 나타내는 표출증상 심도지수(PSDI)의 3개 전체지표에 의해 임상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심리적 문제로 거론되어온 우울(depression)과 불안(anxiety) 증상척도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천명재와 김창대(2005)의 50문항 8요인에 기초하여 윤수연(2005)과 광웅신(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인터넷 사용동기 문항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9요인의 27문항으로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동기영역은 자기표현(ex,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정보관리(ex, 내 홈페이지/블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성적 자극추구(ex, 성적 상대방을 찾기 위해), 성취(ex, 레벨을 올리거나 게임머니를 모으기 위해), 스트레스해소 소일거리(ex, 쉬고 싶어서), 업무편의(ex, 편리하기 때문에), 색다른 자극추구(ex,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서), 친구만남(ex,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기공간(ex, 내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등 9가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자기표현 .83, 정보관리 .65, 성적 자극추구 .82, 성취 .84, 소일거리 .75, 색다른 자극추구 .74, 친구만남 .69

로 나타났다.

일반 사용현황 질문지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와 인터넷 사용 현황(주 사용장소, 1회 접속시간, 일일 접속횟수, 주간 접속시간, 수면시간, 인터넷으로 인한 나쁜 영향, 생활의 지장 정도,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활동순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등),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여부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을 응답하도록 했다.

통계적 분석

먼저 인터넷 사용 현황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A 척도 총점에 의해 분류된 4개 집단간에 인터넷 사용동기, 심리정서적 문제, 부모-자녀 의사소통, 대처전략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중독 총점을 종속변수로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동기(자기표현, 성취, 성자극, 소일거리, 자기공간, 업무편의, 자극추구 등), 대처전략(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자기통제감,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적, 역기능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터넷 사용 현황

본 연구의 표본은 성인 남성 196명(54.6%),

여성 163명(46.4%)으로 구성되었다. 일반표본 261명은 남성 114명(43.7%), 여성 147명(56.3%) 이었고, 표적표본 98명은 남성 82명(83.7%), 여성 16명(16.3%)이었다. 표적표본은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연령은 전체평균은 23.86세(SD=4.53), 일반표본은 평균 22.69세(SD=3.00), 표적표본의 연령은 평균 26.94세(SD=6.23)였다($t(114.89)=-6.53, p<.01$). 학력수준은 일반표본의 경우 대학재학 248명(95.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7명(2.7%), 고졸 6명(2.3%)순이었으며, 표적표본은 대학재학 또는 졸업 70명(71.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명(4.1%), 고졸 20명(20.4%)순이었다. 월수입과 부모 학력수준의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부모의 결혼상태에서 일반표본은 기혼 229명(87.7%)과 이혼/별거/사별이 28(10.7%)명인데 비해 표적표본은 기혼 68명(69.4%), 이혼/별거/사별이 28명(28.6%)이었다.

컴퓨터에 접속하는 장소로는 일반표본이 집(77.8%), 학교(12.3%), 사무실(3.1%), PC방(2.7%) 순이었고, 반면 표적표본은 PC방이 60.2%로 가장 높았고, 집(34.7%), 학교(1.0%) 순이었다.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을 ‘매우 및 상당히’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표본은 10% 표적표본은 27.5%로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이 인터넷 중독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및 정말 그렇다’의 비율은 일반표본이 14.4%, 표적표본이 49.0%였다.

종합해 보면, 표적표본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및 중독에 대한 주관적 인정에서 일반표본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적표본이 평균 4세 연령이 높았고,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비율이 2배가량 높았으며, 컴퓨터의 주 사용장소가 PC방인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급	전체(n=359) ^a		일반표본(n=261) ^a		표적표본(n=98) ^a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196	54.6%	114	43.7%	82	83.7%
여		163	45.4%	147	56.3%	16	16.3%
연령							
19~20세		47	18.0%	47	18.0%	6	6.1%
21~25세		164	62.8%	164	62.8%	38	38.8%
26~30세		42	16.1%	42	16.1%	33	33.7%
31~35세		7	2.7%	7	2.7%	8	8.2%
35세 이상		1	0.4%	1	0.4%	13	13.3%
최종학력							
초등학교		3	.8%	0		3	3.1%
중학교 졸업		1	.3%	0		1	1.0%
고등학교 졸업		26	7.2%	6	2.3%	20	20.4%
대학교재/졸		318	88.6%	248	95.0%	70	71.4%
대학원재/졸		11	3.1%	7	2.7%	4	4.1%
학업성적							
상위		34	9.5%	31	11.9%	3	3.1%
중상위		119	33.1%	90	34.5%	29	29.6%
중위		153	42.6%	103	39.5%	50	51.0%
중하위		40	11.1%	27	10.3%	13	13.3%
하위		13	3.6%	10	3.8%	3	3.1%
가정의 월수입							
100만원		8	2.2%	6	2.3%	2	2.0%
100~200만원		43	12.0%	27	10.3%	16	16.3%
200~300만원		88	24.5%	65	24.9%	23	23.5%
300~400만원		78	21.7%	49	18.8%	29	29.6%
400~500만원		68	18.9%	52	19.9%	16	16.3%
500만원~		72	20.1%	60	23.0%	12	12.2%
부모의 결혼상태							
기혼		297	82.7%	229	87.7%	68	69.4%
이혼		22	6.1%	14	5.4%	8	8.2%
별거		9	2.5%	3	1.1%	6	6.1%
사별		25	7.0%	11	4.2%	14	14.3%
기타		6	1.7%	4	1.5%	2	2.0%

a. 결측치 때문에 각 빈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 인터넷 사용동기의 집단 간 비교

	일반 ^a (n=141)	잠재 I ^b (n=151)	잠재 II ^c (n=58)	고위험 ^d (n=9)	F (3, 355)	p	scheffé
자기표현	6.50 (2.60)	7.83 (2.06)	9.36 (2.70)	11.33 (1.41)	28.49	.00	a<b<c<d
홈피관리	9.47 (3.17)	9.77 (2.57)	9.47 (3.17)	11.56 (2.74)	1.62	.18	
성 자극	4.01 (1.57)	4.86 (1.80)	5.69 (2.51)	8.78 (2.22)	26.57	.00	a<b<c<d
성취 (레벨업)	5.27 (2.06)	6.38 (2.60)	9.24 (3.70)	12.44 (2.60)	46.95	.00	a<b<c<d
소일거리	7.01 (1.86)	8.75 (1.94)	10.66 (2.15)	13.33 (1.50)	71.22	.00	a<b<c<d
편리성	11.72 (1.89)	11.60 (1.80)	11.62 (2.30)	12.44 (2.55)	.59	.62	
색다른일	6.70 (2.42)	8.15 (2.13)	9.67 (2.49)	10.33 (2.78)	27.61	.00	a<b<c,d
친구만남	7.50 (2.48)	8.54 (2.02)	8.95 (2.39)	9.67 (2.18)	8.84	.00	a<b,c
자기공간	8.45 (2.29)	9.75 (1.99)	10.07 (1.90)	12.67 (1.87)	20.34	.00	a<b,c<d

평균 아래()는 표준편차. *df*는 결측치 탓에 상이할 수 있음.

Scheffé 사후비교는 $p<.05$ 쌍별비교의 결과임.

표 3. 대처방식의 집단 간 비교

	일반 ^a (n=141)	잠재 I ^b (n=151)	잠재 II ^c (n=58)	고위험 ^d (n=9)	F (3, 355)	p	scheffé
문제중심대처	19.05 (4.07)	18.38 (3.71)	17.17 (3.46)	15.78 (3.23)	4.80	.00	a>c
정서중심대처	15.07 (3.27)	16.21 (3.10)	16.86 (3.38)	21.78 (3.31)	15.22	.00	a<b,c<,d

평균 아래()는 표준편차. *df*는 결측치 탓에 상이할 수 있음.

Scheffé 사후비교는 $p<.05$ 쌍별비교의 결과임.

표 4.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집단 간 비교

	일반 ^a (n=141)	잠재 I ^b (n=151)	잠재 II ^c (n=58)	고위험 ^d (n=9)	F df	p	scheffé
개방적	27.00 (6.31)	25.03 (5.57)	23.50 (5.12)	20.33 (3.61)	8.23 355	.00	a>b,c,d
역기능적	30.28 (4.16)	28.31 (4.43)	26.81 (4.64)	26.00 (2.74)	11.45 355	.00	a>b,c,d

평균 아래()는 표준편차. df는 결측치 탓에 상이할 수 있음.

Scheffé 사후비교는 $p<.05$ 쌍별비교의 결과임.

표 5. 심리, 정서적 문제의 집단 간 비교

	일반 ^a (n=141)	잠재 I ^b (n=151)	잠재 II ^c (n=58)	고위험 ^d (n=9)	F df	p	scheffé
우울	13.50 (8.72)	17.09 (8.86)	22.62 (11.04)	26.22 (11.22)	16.80 354	.00	a<b<c,d
불안	6.74 (6.22)	10.20 (6.63)	15.26 (8.56)	12.00 (9.04)	21.87 355	.00	a<b<c

평균 아래()는 표준편차. df는 결측치 탓에 상이할 수 있음.

Scheffé 사후비교는 $p<.05$ 쌍별비교의 결과임.

표 6. 자기통제감의 집단 간 비교

	일반 ^a (n=141)	잠재 I ^b (n=151)	잠재 II ^c (n=58)	고위험 ^d (n=9)	F df	p	scheffé
자기통제	73.09 (9.48)	67.81 (9.04)	65.91 (10.04)	60.89 (10.19)	13.76 354	.00	a>b,c,d

평균 아래()는 표준편차. df는 결측치 탓에 상이할 수 있음.

Scheffé 사후비교는 $p<.05$ 쌍별비교의 결과임.

A 척도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수준에 의한 집단 구분에서 고위험군은 2.5%, 잠재위험II군은 16.2%, 잠재위험 I군은 42.1%, 일반군은 39.3%였다. 일반표본 중 고위험의 비율이 0.4%, 잠재위험 II군의 비율이 7.7%인 것에

비해, 표적표본은 고위험군 8.2%, 잠재위험II군 38.8%로, 두 표본조건 간에 사용자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72, p<.01$).

A 척도 총점의 경우 일반표본은 평균 42.58점(SD=8.80), 표적표본은 평균 52.17점(SD=

표 7.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표

예측변인	β	t	R^2	조정된 R^2	R^2 변화량	df	p
소일거리 ^a	.41	9.01	.46	.46		307	.000
성취(레벨업) ^a	.21	4.82	.53	.53	.07	306	.000
불안 ^b	.23	6.39	.59	.58	.06	305	.000
자기공간 ^a	.10	2.22	.60	.60	.02	304	.001
성자극 ^a	.12	3.10	.62	.61	.01	303	.002
개방적 의사소통 ^c	-.08	-2.22	.62	.62	.01	302	.014
자기표현 ^a	.10	2.07	.63	.62	.01	301	.040

a. 인터넷 사용동기, b. 심리, 정서적 문제 c. 부모-자녀 의사소통

11.26)이었다($t(143.83)=-7.60, p<.01$). 대체로 일반표본은 A 척도분류에 의한 일반군에 가깝고, 표적표본은 A 척도분류에 의한 잠재위험 I 군 상위점수에 해당되었으며, 표적표본은 일반표본 보다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도가 높았다.

일원변량분석

A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일반군/ 잠재위험 I 군/ 잠재위험 II 군/ 고위험군 등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scheffé 사후비교를 통해 사용자 수준에 따른 제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용동기 하위 영역 중 편의성과 흥미관리를 제외한 모든 사용동기는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우울과 불안 및 대처전략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중독의 예측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 사용동기

(자기표현, 성취, 성자극, 소일거리, 자기공간, 업무편의 등) 대처방식(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자기통제,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적, 역기능적)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중독 점수를 예측하는 변수는 모두 7개였으며, 5개의 인터넷 사용동기(소일거리, 성취, 나표현, 성자극, 자기공간), 불안,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역상관)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7개의 변인이 설명하는 인터넷 중독의 총 변량은 62%로 나타났다($R^2=.62, p < .01$). 특히 “심심해서, 고민이나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의 소일거리 동기가 가장 강력한 인터넷 중독의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R^2=.46, p < .01$). 반면, 인터넷 사용시간, 대처방식, 우울, 자기통제감 변인은 회귀방정식에서 제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 환경적 요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인터넷 사용동기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성인기 인터넷 중독의 예측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터넷 사용현황 결과를 종합할 때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은 하루 6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했다. 둘째, 인터넷 사용에서 게임과 동호회 등 자신이 관심을 갖는 특정 활동에만 집중하며, 인터넷 사용 동기(소일거리, 자기표현, 성취 등)가 매우 높았다(소병현, 2006).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건전성이 일관되게 낮고, 심리정서적 문제로서 우울, 불안 수준이 높았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는 모두 7개였으며, 5개의 인터넷 사용동기(소일거리, 성취, 자기표현, 자기공간, 성자극)와 불안, 부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역상관)이 인터넷중독 변량의 총 62%를 설명하였다.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인터넷 사용동기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소일거리 동기는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 개인이 특별한 목적 없이 소일거리로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타당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터넷 사용동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곽용신, 이영호, 2008), 인터넷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동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자기표현 동기가 주된 것이라면 부모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며, 일상에서 자기표현 기술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취(레벨업) 동기가 높은 개인의 경우라면 학업 및 직업 장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며, 학업 및 직업적 성취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제까지 인터넷 중독 진단에 있어 인터넷 사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강조되어 왔으나, 다른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들과 함께 영향력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회귀방정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초기 성인기 집단의 경우 단순히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측, 진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의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사용시간 보다 직접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박성민, 2010).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서 자기통제감이 자주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관련 측정치들은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으나(강혜련, 2005; 박은영, 2005; 윤성민, 2006),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다회귀분석 등과 같이 다른 공변수나 오차를 고려할 때 그 역할이 미미해질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효과에 대한 반복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대처방식 역시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안영균, 2005; 이명주, 2008)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건전성 및 개인의 심리 정서적 건강,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건전동기의 형성이 있을 때,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 예방될 수 있겠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터넷 사용기회 자체를 낮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동기를 파악하여 개인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줄이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방희정, 조아미, 2003;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이수진, 2008).

둘째, 표적표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별 사용욕구에 따라 무제한으로 PC방을 이용하고 있거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고 은둔생활을 하며 거의 하루종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의 경우 심리, 정서적 취약성과 동시에 환경적 제반 특성에서도 일반적인 사용자들에 비해 불리한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과다사용이 곧 중독의 문제는 아니지만, 심리적 사회적 취약성이 클 경우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개입활동도 필요하겠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표적표본

군에 집중하여 개인의 심리적 내면세계를 면밀히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표적표본은 일반표본에 비해 잠재위험 및 고위험군의 표집이 용이했다. 물론 이 같은 방식은 일반표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시행하는 것에 비해 개별대상자를 추적하는 방식인 탓에 비용과 시간적 노력이 훨씬 더 요구된다는 단점이 명백하다. 하지만 개별적인 면담과정을 통해 추적된 고위험군은 단순한 자기보고 질문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에 비해 훨씬 실제적인 인터넷 중독자의 특성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평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상정하고 통계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상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현상들은 현재진행형이며 차후 시간경과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단기횡단적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장기종단적 자료의 축적이 중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한 사용동기 척도는 척도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엄정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동기 관련 변수가 인터넷의 사용과 중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롭게 인터넷 사용동기를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Korgaonkar & Wolin, 1999; Papacharissi & Rubin, 2000).

참고문헌

- 강혜련 (2005). 장, 노년층의 자기통제감 및 우울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만철, 오익수 (2001). 인터넷중독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9, 114-135.
- 강정주 (2001).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웅신 (2006).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웅신, 이영호 (2008). 인터넷독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91-31
- 김광일, 김재환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연구소.
- 김영혜 (2010). 부정적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85-900.
- 김재휘, 홍재욱 (2000). 인터넷 이용자의 동기 및 사이트 이용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 25-46.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제 변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범 (1999). 인터넷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2001). 여성의 인터넷 이용동기, 만족,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41-51.
- 박성민 (2010). 인터넷 이용동기, 우울이 대학생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희, 최준호(2004). 인터넷이용동기와의이용행태간상관관계에대한탐색적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8(4), 243-270.
- 박은영 (2005).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 소병현 (2006).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균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들의 정신병리 및 대처방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민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수연 (2005). 인터넷 게임중독 및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게임특성, 게임이용동

- 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재희 (1998). 인터넷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 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진 (2008).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75-192.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수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정신건강연구소.
- 이형초, 최윤경, 이순목, 반재천, 이순영 (2007). 성인 인터넷 병리적 사용의 행동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형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765-791.
- 이명주 (2008). 청소년의 문제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요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명재, 김창대 (2005). 인터넷 이용 동기 프로파일에 의한 인터넷중독자 분류 연구. 상담학연구 6(1), 211-227.
- 표현정 (2006). 인터넷 중독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모형들의 비교 및 대안적 심리학적 모형개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표현정, 이민규 (2009).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모형의 탐색: 중독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14(3), 531-548.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2008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2009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 665-683.
- Barnes, H., & Olse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Cowan P. A. & Hetheringt. M. on(Eds), Family transitions.* 111-163. Hillsdale. N. J . Erlbaum.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6.
- Denham, S. A., Renwick, S.,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 - 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 - 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 - 249.
- Derogatis, L. R. (1977). *Symptom check list-90 (Rev.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Kendal. P. C., & Wilcox. L. E. (1979). Self 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rgaonkar, P., & Wolin, L. (1999). "A multivariate analysis of web usag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9(1), 53-6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 Papacharissi, Z., & Rubin, A. M. (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4(2), 175-196.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vandeCreek & T.Jackson(eds.)*Innovation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Vol. 17).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2. 1. 30.
수정원고접수 : 2012. 5. 22.
최종게재결정 : 2012. 6. 8.

The effects of internet use motiva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emotional problem on internet addiction for early adults

Joong-Kyu Park

T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Sung-Man Bae

Ilsan paik hospital
Department of ment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predict an internet addiction for early adults. Our study enrolled 359 adults who live in Seoul, Gyeonggi, Daegu and Gangwon(Chuncheon). 261 general samples were mainly college students(male 114, female 147) and target samples using primarily the internet in PC room were 98 people(male 82, female 16). Stepwise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internet use motivations,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 and anxiety explained 62% of internet addiction. Specially, pastime use motivation is the most strong predictive vari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concrete internet use motivation of user, communication pattern with parents for prediction and therapy of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high-risk group, communication between parent-children, internet use motivation